Entertainment p/20

가을 안방 1020 여신으로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제3048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류현진 부활투 14승 달성

한달 만에 의원선서하는 7·30 당선자들 7·30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나경원, 이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권은희 의원 등 15명이 당선 한 달여 만인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줄인다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신도시는 조성 않기로

주거환경 비중 40%로 안전위주 재건축 허용

소형 의무기준도 완화 공공택지 지정 안한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지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34년만에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활력을 회복시키기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럴 경우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100%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특히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이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 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2017 수능부터 한국사 필수

50점 만점… 국어·수학 영역은 수준별 폐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1일 각각 발표했다.

한국사는 2016년 11월 17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4교시에 탐구영역과 함께 시행된다.

한국사의 문항 수는 20개이고, 만점은 50점이다. 성적은 절대등급으로 제공되며 1등급과 2등급의 분할 점수는 40점으로, 40점 이상~50점이 1등급이다.

대학입학 전형의 정시모집에서는 동일 모집단위 내에서 분할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또 국어와 수학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시험을 치른다.

201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준별 A·B형 시험은 완전히 폐지돼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기 전인 2013학년도 체제로 돌아간다.

/윤다혜기자 ydh@

139일 만에 세종청사 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팽목항에서 현장을 지키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참사 이후 139일 만에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 정기국회 스타트

세월호 정국 대치 계속… 송광호 체포동의안 3일 처리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개회식 직후 시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입법화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설득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3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정기국회 순항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향배에 달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 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58석의 집권여당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조현정기자 jhj@

"개회식은 했지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넘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얼음물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있다.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이벤트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얼음물 샤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 이벤트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 달 만에 모금액이 1억 달러(약 1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미국 ALS 협회는 밝혔다.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이어지는 '찬물 세례'는 온·오프라인에서 최고의 놀이감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세대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응용, 사진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절벽에서 강물로 뛰어내리는 새로운 아이스 버킷 방식을 택한 18세 영국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현장을 정리하던 소방관 4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다.

훈훈한 마음으로 시작된 행사가 본래의 의미는 퇴색된 채 놀이와 자기 과시용 수단으로 전락해 씁쓸하다. 게다가 각종 사고로 이어져 목숨까지 잃는 상황이 빚어지니 아이스 버킷 열풍이 도를 넘어선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부금이 쌓이고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느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깝다.

후끈 달아오른 기부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재미있는 사진 등 '잿밥'에 관심 많은 사람들 덕분에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착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에 동참하는데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지는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아이스 버킷으로 '잘난 척' 하려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北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북한이 1일 오전 자강도에서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동쪽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되는 1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2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 발사체는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중국 국경 60여 ㎞ 남쪽인 자강도 용림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의도를 분석 중이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체의 궤적으로 볼 때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신형 전술미사일이거나 사거리를 조정한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줄인다

<1면에서 계속>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한 보증금 전환의 50%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본 사 인 사

◆편집국 조직개편
△부서명 변경: 생활레저부→생활유통부
△신설: 금융시장부
△경제산업부 팀 개편: 재계팀, 전자/통신팀, 자동차/항공팀, 부동산팀, 철강/유화팀
◆편집국 인사
▲승진
△생활유통부 부장대우 정영일 △경제산업부 자동차/항공팀 부장대우 임의택 △생활유통부 차장대우 박지원 △금융시장부 차장대우 김민지
▲전보
△금융시장부 부장 부국장 김하성(온라인뉴스총괄 겸직) △경제산업부 철강/유화팀장 부장대우 김민준 △경제산업부 재계팀 차장대우 박성훈 △정치사회부 차장대우 이정우(온라인뉴스부 겸직) △경제산업부 전자/통신팀 기자 양성운 정혜인 △금융시장부 기자 김현정 백아란 △연예스포츠부 기자 김학철
▲신입
△금융시장부 기자 김형석

"병사 생활관 침대형 내년 완료"

국방부는 1일 병사 생활관을 소대 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대 단위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 침대형 구조로 바꾸면 1인당 주거 면적이 기존 2.3㎡에서 6.3㎡로 3배 정도 확대된다"며 "대상 부대가 아니었거나 (적용이) 늦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변경해 우선 투입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가급적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병사들에게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시험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지하철 안전결함 8만건

균열·누수 등 심각… 예산부족 핑계 11%만 보수

서울 지하철의 노후화로 최근 5년간 모두 7만 9569건의 안전 결함이 지적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건 11%(1만 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3월 자치구 23곳(양천·광진 제외)과 합동으로 지하철역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선 균열 6만 2638건과 누수 710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9호선 구간에선 균열 1만 5931건과 누수 355건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메트로는 148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각각 22억원, 1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11년 50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30억원, 올해 22억원으로 매년 0.3%가량 줄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가역사 정밀점검을 시행한 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만, 현장점검을 한 결과 균열, 백태, 누수, 철재부식 등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고가역사 20곳에 대해 정밀점검을 하면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조사 등 현장재료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 재정난과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싱크홀' 이번엔 청담동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가로 10cm, 세로 20cm 가량의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구청 관계자들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번' 등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구원파 신도 자택서… 현금 없고 고가 기념품만

검찰이 지난 6월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 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몽블랑 만년필 등 고가의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유씨의 가방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3개를 경기도 안성의 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자택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3개 가방은 여행용 가방 1개와 크기가 좀 더 큰 이민용 가방 2개다.

이 가방들은 유씨가 도피 생활을 하기 전 '신엄마' 신명희(64·여)씨가 구원파 신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용 가방에는 몽블랑 만년필 30세트가 들어있었고, 이민용 가방에는 산삼 등 기념품이 담겨 있었다. 한 이민용 가방 안에는 '1번'이라고 적힌 띠지가 떨어진 상태로 들어 있었다.

앞서 검찰은 6월 순천 별장과 8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친척 자택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피용 가방 7개를 확보했다. 각각의 가방에는 2~8번이 적힌 띠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2~8번의 띠지가 붙은 가방 7개에는 현금 25억원과 권총 5정 등이 나눠 담겨 있었다. /김민준기자

자사고 종합평가결과 브리핑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서울 자사고 재평가 반려"

교육청 "8곳 기준점수 미달… 명단 4일 발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결과에 대해 별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번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은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 대상 학교 등을 4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

경찰청장 "조폭 뿌리뽑겠다"

불법 업주도 신고하면 선처

강신명 경찰청장이 1일 "동네 조폭, 즉 '건달'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불입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동네 조폭을 소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신고인데, 조폭들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어서 대검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청장은 "업주들이 과거에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조폭의 갈취를 당해 신고했다면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대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윤다혜기자

서울 '알바' 시급 5890원

최저임금보다 680원 높아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의 평균 시급은 589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47원 오른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680원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1일 알바천국 사이트(www.alba.co.kr)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69만 94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최다 모집 업종은 음식점으로 6개월간 총 9만 8335건(16.9%)의 공고를 냈으며 편의점(7만 7735건), 패스트푸드점(6만 7136건), 일반주점·호프(5만 6529건), 커피전문점(4만 75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공고가 많은 20개 업종 중 가장 시급이 높은 업종은 영업·마케팅으로 7895원이었으며 이어 고객상담(7373원), 배달(6474원), 전단배포(6229원), 일반주점·호프(6041원), 사무보조(6040원) 등 순이었다. 음식점의 시급은 5959원으로 낮았다. /김민준기자

장성 요양병원 강제 폐쇄

5개 병원서 서류상 환자 주고받아… 요양급여 618억원 환수

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된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일 효사랑 요양병원 등 관련 병원과 의료법인으로부터 요양급여 618억원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씨(구속 기소)가 설립한 2개 의료법인과 광주와 전남 장성에 운영한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다. 환자 개인이 부담한 진료비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씨가 운영한 요양병원은 그동안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주 1~2회 출근하는 약사가 없는 날에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을 짓고도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드는 점을 노려 같은 건물에 이중으로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 주고받기를 했으며 병원 직원까지 허위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정황도 드러났다.

명의만 빌려준 이사들은 이사회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허가권자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관리를 허술히 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을 구속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데 관여한 다른 공무원 1명,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방화범 김모(82)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취업 상담 1일 오후 서울 흑석동 중앙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4 취업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채용 상담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60대 '수락산 카사노바'

등산 유부녀들 상대… 18억원대 사기

산에서 만난 유부녀들을 상대로 18억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락산 카사노바' 한씨(60)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총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주로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 등산을 온 40·50대 유부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 A(49·여)씨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고 접근, 이후 3억원을 빌렸다.

한씨는 A씨에게 "40여개의 하청업체와 직원 4000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을 운영한다" "법조계 인맥도 많다"는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노래방이나 커피전문점을 차려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한씨의 꾐에 빠져 성관계를 갖거나 실제 사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민준기자

이석기 선거비용 사기 재판 집중심리로 내년 초 마무리

2년째 끌어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이 접수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더는 진행을 늦추기 어렵다"며 "4~5개월 내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기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70여명, 변호인 측까지 합치면 증인만 80여명이어서 재판부가 내년 초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1주일에 1~2회 심리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 14명은 2010~2011년 광주·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약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분주한 한복 가게 추석을 1주일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린이용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문' 이어 큰 보름달 추석때 뜬다

8일 추석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8일 오후 6시 8분에 보름달이 떠오른다. 11일(음력 7월16일) 올해 가장 컸던 '슈퍼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달이 차올라 완전히 둥근 모습을 하게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38분이다. 이때는 달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둥근달은 9일 오전 6시 3분 직전에 서쪽 지평선에서 관찰할 수 있다.

지구 상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달이 커 보인다.

9일 0시께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5만9066km로,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보다 2만5000km 정도 가까워진다.

기상청은 추석연휴 기간인 6~10일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내륙 일부 지역에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다혜기자 ydh@

서울시 청소년 '참여형' 인권플랜 마련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키우기 3년플랜'을 1일 발표했다. 대상은 어린이(0세~만 12세 미만) 99만 1024명, 청소년(12세~19세 미만) 81만 1907명이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플랜은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소외계층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살폈다.

우선 100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첫 무료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임금체불·무보수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안내받도록 했다.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쉼터를 2016년까지 7개소로 늘린다.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새롭게 개발해 선보인다. /김민준기자

metro Hongkong

3D 프린터로 '머리 반쪽' 복원

건축현장 사고 40대 남성 패인 부분 티탄 소재로 출력… 안면 재건 성공 '화제'

사고로 '머리 반쪽'을 잃어버린 중국 남성이 3D 프린팅 기술로 복원, 눈길을 끌고 있다.

10개월 전 후스푸(46)는 건축 현장에서 방전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3층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이 사고로 그는 머리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머리 반쪽이 움푹 패이게 됐다.

한쪽 눈도 변형이 왔고 시력도 0.2로 떨어졌다. 안면이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생각하고 먹고 걷는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고 글자도 쓸 수 없다. 아내는 "사고 후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남편이 이런 상태라 아들 결혼도 문제"라며 걱정했다.

후스푸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위해 시안시에 위치한 시징병원 성형외과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머리뼈가 손상돼 두부함몰기형이 발생했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 왔다고 밝혔다. 또 왼쪽 눈 함몰로 시력감퇴,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났으며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담당의사인 수마오귀 교수는 "이런 넓은 범위의 두부 함몰 환자는 매우 드물다. 머리뼈 복원은 매우 복잡한 기술로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병원 내 전문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팀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티탄 소재로 머리뼈를 복원하고 수술 비용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한 회사는 머리뼈 재건 재료 및 3D 프린팅 관련 비용을 전부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수술을 진행했다. 두피와 뇌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티탄을 이식할 때 두피와 뇌막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뇌조직의 손상을 막아야 했다. 눈 주위를 복원할 때에는 시력과 안구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티탄이 안전한 소재이기는 하지만 거부 반응이나 감염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조심스러운 수술 끝에 티탄으로 만든 모형은 성공적으로 이식됐다.

수마오귀 교수는 "이번 수술은 3D 프린팅 모형 덕분에 이식할 정확한 지점을 표시할 수 있어 안면 재건의 어려움이 크게 감소했다"며 "3D 모형과 비교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수술 시간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후스푸는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고 조만간 퇴원할 계획이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IML. Curitiba registra 22 mortes violentas

De sexta-feira até ontem 22 corpos deram entrada no IML (Instituto Médico Legal) depois mortes violentas em Curitiba e Região Metropolitana. A maior causa dos óbitos registrados foram os ferimentos com armas brancas e de fogo, com 8 vítimas. Um homem de 54 anos ainda morreu após ser atacado por um cachorro (veja ao lado).

Já os acidentes de trânsito foram responsáveis por sete mortes durante o final de semana. Entre as batidas com vítimas fatais, houve uma viatura descaracterizada da Polícia Civil que se

8
pessoas morreram vítimas de armas brancas ou de fogo durante o fim de semana em Curitiba e RMC. Esta foi a principal causa de mortes violentas na região.

O IML também registrou duas mortes devido a quedas. Uma delas foi de um homem de 76 anos, que foi levado para o Hospital Cajuru, onde morreu. Outro homem, de 72 anos, também morreu após uma queda em

사고사망 원인 1위 '살인'

브라질 쿠리치바의 법 의료원에 최근 3일동안 22구에 달하는 시체가 인계됐다.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백색 무기로 불리는 칼에 의한 자상이었으며 총상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주말 동안에만 7명에 달했으며 한 54세의 한 남성은 맹견에게 공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많은 수는 의도적인 살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자도 8명이나 됐다.

metro France

Record du monde : un Français parv à décapsuler 2 000 bières en vingt minutes

CRÉÉ : 29-08-2014 17:20

INSOLITE - A Brighton en Angleterre, un Français a relevé le défi du record de vi décapsuler 2000 bouteilles de bière. Défi réussi pour ce dernier, qui devrait entre prochainement dans le Guinness Book.

'맥주병 2000개 따기' 신기록

맥주병 따기 대회에서 프랑스 남성이 신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올라갈 예정이다. 최근 영국의 한 해변에서 열린 맥주병 따기 대회에서 프랑스 남성이 맥주병 2000개를 24분 37초만에 따는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의 기록은 2009년 크로아티아인이 세웠던 기록으로 28분 11초다. 올해엔 기록이 4분이나 단축됐다. 새롭게 기네스북에 등재될 프랑스인은 지난 12년간 바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metro Mexico

"재활용품 넣고 돈 받아가세요"

최근 멕시코시티 쿠아우테목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품 수거 기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기계에 재활용품을 넣으면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재활용 전문 기업 '흥싱 플라스틱'은 재활용품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보상 시스템을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 시민이 기계에 넣는 빈 병과 깡통 개수 만큼 소정의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기계에 재활용품을 넣었다고 아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식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카드를 발급해 사이버 머니 형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금액은 빈 병과 캔 하나당 10센트(약 100원)다. 사이버 머니는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데 쓸 수 있고, 유명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 재활용품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보증금 10페소(약 800원)를 내야 한다.

흥싱 플라스틱은 멕시코·중국·콜롬비아·미국·스페인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쿠아우테목 당국과 이 기업은 앞으로 쿠아우테목 지역에 기계 6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멕시코 공원처럼 넓은 공간에 먼저 기계를 설치한 뒤 점차적으로 설치 지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싱 플라스틱의 홍보 담당자는 "환경도 챙기고 사회적 기여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벌써 3만 명이 등록 신청을 했을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일>

코스피
2067.86
(−0.68)

코스닥
566.95
(−3.25)

금리(국고채 3년)
2.52
(+0.01)

환율(원·달러)
1012.00
(−2.00)

뉴스&뉴스

'스마트 초록 버튼' 무상제공

●SK텔레콤과 한국지엠이 긴급 응급호출 서비스 '스마트 초록 버튼'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양사는 11월 30일까지 한국지엠 '쉐보레' 차량 계약 고객 2만명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선정한 청소년 1만명 등 총 3만명에게 3만5000원 상당의 SK텔레콤 스마트초록버튼 기기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난 4월 SK텔레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출시한 스마트 초록 버튼은 위기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연동된 기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긴급 응급호출(위치정보문자 및 알림)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장윤희기자

태블릿게임 뜨고 콘솔 지고

●태블릿 게임시장 규모가 5년 안 3배 넘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주니퍼리서치는 태블릿PC 게임 글로벌 시장규모(매출 기준)가 올해 36억 달러(약 3조6500억원)에서 2019년 133억 달러(약 13조4900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1일 전망했다.

전 세계적인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증가는 물론 기기 자체의 편의성·저장 용량·그래픽 능력 등에 힘입어 태블릿PC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PC나 콘솔 게임 업계는 앞으로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게임 전용 컴퓨터 '스팀 머신'을 만든 밸브(Valve),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콘솔 '쉴드'(SHIELD)를 만든 엔비디아(NVIDIA) 등 하드웨어 제조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니퍼리서치는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나대투증권, KRX 금시장 거래 시작

참가 증권사 11개로 늘어… 개인투자자 확대 기대

issue&view
외형 갖추는 KRX금시장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금시장의 양성화와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KRX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이 지난달 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KRX금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11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KRX금시장 개장 이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3월 10억9300만원에서 4월 38억2300만원으로 뛰고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41억310만원으로 40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 5월과 6월 33억990만원, 33억3380만원을 기록하고서 7월 29억5200만원으로 주춤했다가 8월 이처럼 늘어났다.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48.9%에서 6월 60.5%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찍은 뒤 7월 54%, 8월 52.7%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고령화와 노후대비, 저성장시대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더불어 금시장 주변 여건 개선으로 증권사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참여 증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 투자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 골드뱅킹보다 4% 저렴

이날 하나대투증권이 KRX금시장에서 거래를 개시하면서 참가 증권사는 11곳으로 늘었다.

3월 KRX금시장 개장과 함께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8곳이 참가했으며 4월 미래에셋증권, 7월 동양증권이 추가로 들어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KRX금시장을 통한 금 투자에 이점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실물 인출 기준으로 KRX금시장의 가격이 시중 은행의 골드뱅킹 보다 4% 이상 저렴한 점이 투자 유인으로 꼽힌다

KRX금시장의 시세와 국제 금시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월별 기준으로 국제가 대비 KRX금시장의 가격 비율은 3월 101.43%에서 5월 100.73%로 하락한 뒤 7월 100.45%, 8월 100.50%를 기록 중이다.

그동안 KRX금시장의 가격이 국제 금값이나 실물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외시장 금값보다 비싸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는데, 이 비율이 장외시장 수준인 100.4~100.5%까지 내려온 것이다.

◆실물사업자 참여 저조

다만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야 10kg을 간헐적으로 겨우 넘어서고 있고 금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며 좀처럼 상승 추세로 진입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금 실물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도 문제다. 현재 KRX금시장에 참가하는 실물사업자는 58곳인데 거래대금이나 거래비중이 개인투자자보다 작다.

실물사업자의 거래대금은 3월 11억4020만원에서 20억~30억원대를 오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거래대금이 36억79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 비중 역시 3월 51.1%를 차지한 뒤 대체로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KRX금시장의 거래여건이 조성되려면 금융당국이 당분간 더 활성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유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KRX금시장의 수요는 국제 금 수요와 맞닿아있으며 국제 금 수요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내년 하반기 이후쯤 금시장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KRX금시장이 안착하려면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면세 혜택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알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방송인 은동령, 사유리, 김흥남 ETRI 원장(왼쪽부터 순서대로)이 1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지니톡 4개국어 자동통역 시연행사'에 참석해 지니톡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 연결 없이도 통역 가능"

스마트폰 4개국 자동통역서비스 제공

통신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자동통역해주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개발한 자동통역 앱인 '지니톡'을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연했다.

그동안 지니톡은 통신이 돼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함으로써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자동통역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로밍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면 국가에 따라 통신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통신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외국인과 공유해 통역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각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고 말을 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통역결과가 직접 전달된다.

이날 시연된 시험버전은 USB를 꽂아야 작동하지만 ETRI는 연말까지 이를 앱스토어에서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 원하는 사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유리(일본)·은동령(중국) 등은 인천공항에서 '지니톡' 단말탑재형 버전이 든 USB를 직접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며 홍보에 나섰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더욱 진화한 지니톡 기술로 소프트웨어(SW)가 언어와 접목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TRI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지니톡을 기반으로 한 '인천광역시 통역비서' 앱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인천광역시 통역비서'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용어와 각종 스포츠 용어가 실려 있어 45개국에서 온 아시안게임 선수·임원들에게 특화된 통역과 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상반기 기업 실적 악화

상반기 기업들의 외형적 실적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마저 실적이 급감하면서 전기전자(IT) 업종의 독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건설과 유통 등 내수 업종의 실적과 수익성은 나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69개사 중 76개사를 제외한 493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매출액은 906조74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48조7506억원으로 11.73% 줄었고 순이익만 37조4754억원으로 0.36% 증가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8%로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0.71%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4.13%로 0.02%포인트 올랐다.

이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영업이익이 약 54원이고 이 중 순이익은 약 41원이라는 의미다.

코스닥시장은 매출은 소폭 늘었으나 수익성은 나빠졌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법인 726개사 중 분석이 가능한 679개사의 매출액은 60조253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74% 늘었다. 이 기간 영업익과 순이익은 각각 3조원과 1조7000억원으로 6.61%, 30.69% 각각 줄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IT 독주시대를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현정기자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카카오톡 친구맺고
카톡대화상담 받으세요!

알뜰한 가을맞이 여행제안!

단풍놀이

어디까지 가봤니?

국내 대표명소부터 가까운 나라 중국&일본까지
가을의 낭만을 찾아 떠나보세요!

중국여행

성도/구채구/모니구 5일/6일
583,6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성도(1)-구채구(2)-성도(1/2) ● 사천항공 신기종 A330 탑승
● 구채구 이동간 하나투어 전용 휴게소 휴식, 전일정 다양한 현지식과 한식 제공

[선착순 한정특가]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6일
585,1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곤명(3/4) ● 자연의 기적 석림&구향동굴 관광 포함, 전일정 다양한 특식제공

[알뜰초특가] **백두산(서파)/대련** ● 압록강 유람선 탑승 5일
583,3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대련-단동(1)-통화(1)-백두산-통화(1)-단동(1)-대련 ● 백두산 서파코스 관광, 고구려 유적지 관광

홍콩 ★핫플레이스 소호거리+2층 오픈탑 버스 탑승 4일
499,0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홍콩(3)

상해/항주/주가각 ★서커스+서호유람선 탑승 4일
333,3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제외) ● 상해(1)-항주(1)-상해(1)

일본여행

북해도(후라노) 4일/5일
744,4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치토세-삿포로(1)-노보리 벳츠-도야-니세코(1)-오타루-죠잔케이(1)

도쿄(하코네/시즈오카) 3일/4일
594,400부터▶9월~10월 매일(일부제외) ● 도쿄(1)-에노시마-도쿄(1)

규슈(유후인마을) 3일/4일
464,4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사가(1)-가라츠-후쿠오카(1)-사가 ※상품별 일정상이

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4일
519,800부터▶9월~10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 간사이-나라-오사카(1)-교토-오사카(1)-고베 ※상품별 일정상이

남큐슈(미야자키/가고시마) 3일/4일
455,600부터▶9월~10월 매주 일,수,금요일(일부날짜 제외)
● 가고시마-사쿠라지마-이브스키-가고시마(1)-기리시마(1)-가고시마

국내여행

[진에어 특가] **제주도** 자유여행 3일
339,000부터▶9월~10월 매일(추석연휴 제외)
● 제주(2) ● 오션팰리스호텔+항공+렌터카 포함
● 네비게이션 무료제공, 모바일 관광지 할인쿠폰 제공

내나라여행 **강원일주** 3일
450,000부터 ▶9월 29일/10월 13,20,24일
● 서울-속초-양양-설악(1)-삼척-정선(1)-영월-제천-서울

울릉도/독도 섬여행 3일
289,000부터▶9월~10월 매일(일부제외)
● 울릉도(2) ● 서울/경기/인천↔묵호항 여객터미널 왕복셔틀버스

내나라여행 **남해안일주** 3일/4일
450,000부터 ▶10월 13,20일/11월 3,10,17일
● 서울-순천-여수(1)-남해(1)-진주-서울 ※상품별 일정상이

담양/고창/군산 2일
179,000▶9월~10월 매주 금,토(일부제외)
● 군산(1) ● 관광호텔 이용, 담양 죽녹원/고창 선운사/군산 선유도
● 전일정 지역별미 식사 제공(간장게장, 풍천장어, 담양 떡갈비 등)

www.hanatourist.com

강남점 **1600-6963**
신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 뚜르드카페 내 위치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포함입니다.(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경비] 현지에서 지불해야하는 필수 경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열기 1일 SH가 서초구 내곡지구에 짓는 '내곡지구 2·6단지 국민주택'의 청약접수를 시작하자 이날 오후 시민이 청약 접수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누가 먼저 올릴까?

미국·영국 인상 시기 관심 집중

미국과 영국 중 누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할까.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나란히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두 나라의 경기회복 강도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 경제가 올해 3.2%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영국 고용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 수는 감소하는 등 2012년 하반기 이후 고용개선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역시 경제 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고용은 양호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연말까지 6년 만의 최저치인 5.8%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출구 전략을 서둘러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말 내년초 인상할 듯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조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OE에서는 9명의 통화정책위원 중 2명이 금리인상을 주장했고, 미 연준 안에서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OE가 최근 공개한 통화정책위원회(MP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월 회의에서 BOE가 아닌 외부 출신 위원 두 사람이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위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깨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BOE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빠른 경제 성장세와 고용시장 회복이 또다시 BOE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BOE의 첫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보다 이른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미 연준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개선됐다"며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이르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블랙록의 릭 리더 미국채권 담당 공동대표는 "미국 노동부가 5일 발표할 예정인 8월 고용지표가 기준금리 향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연준이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고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계좌 하나로 비과세 상품 관리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 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추석 자금 방출 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자금운송 담당자가 추석자금을 이송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라인 인기 캐릭터 총출동

다음과 네이버 이색 대리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이 캐릭터를 내세워 포털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각각 다음과 네이버에 제휴된 캐릭터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벗어나 포털과 오프라인으로 무대를 넓히는 중이다.

합병을 한달 앞둔 다음과 카카오는 벌써부터 PC와 모바일을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카페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카카오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스티콘(스티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프렌즈 스티콘은 다음 카페 댓글을 쓰거나 게시글을 올릴 때 이모티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용자가 카페 앱에 접속할 때마다 '카페앱과 카카오프렌즈가 만났다!'란 이미지를 띄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는 중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다음 카페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는 500만명이 넘는다.

스티커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카카오프렌즈와 라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바일 게임 '라인 레인저스'.

다음의 이같은 마케팅 방식은 경쟁사 네이버와 라인의 선례와 유사하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 캐릭터를 카페 댓글과 게시글로 꾸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듯이 글자 대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한다. 네이버 카페 앱 이용자는 1000만명을 웃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촉발시킨 '카페 원조' 다음 입장에서 네이버에 선두를 빼앗긴 것이다.

네이버의 국내 포털 점유율은 80%를 넘나들지만 모바일 메신저 분야만큼은 카카오톡이 라인을 제치고 90%대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다음은 카카오와의 합병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다음 카페 앱과 카카오 프렌즈 공동 마케팅이 네이버와 라인의 궁합을 넘어설 지가 관전 포인트다.

모바일 메신저 캐릭터의 포털 대리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라인은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에 라인 캐릭터 매장을 개설하고 전국 곳곳에 라인 프렌즈 팝업 스토어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도 카카오 캐릭터 인기에 힘입어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도시에 카카오 팝업 매장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샤니빵과 함께 카카오 캐릭터 빵도 출시했다. 빵을 구입하면 카카오 캐릭터 스티커를 증정하는 마케팅으로 모바일 인기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이 최종 확정되면서 10월 1일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다음은 사명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10월 말에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다음카카오'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삼성전자, IFA서 생활가전 아트갤러리 공개 삼성전자 모델이 1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아트 갤러리'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럽의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일러스트 작가인 임마누엘 로메프, 클라스 파렌, 안나 쾨페세스의 작품으로 구성된 생활가전 아트갤러리를 오는 5일 독일에서 열리는 IFA 2014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넥슨 등 계열3사 신입·경력 모집

넥슨, 넥슨지티, 띵소프트 등 넥슨 컴퍼니 3개사에서 1일부터 22일까지 2014년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신입 모집 분야는 ▲게임 개발(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게임사업 ▲IT엔지니어 ▲웹기획 등으로 각 사에 따라 일부 다르며 경력은 전 부문 모집한다.

NEXON COMPANY RECRUIT 넥슨컴퍼니 공개채용

신입사원채용은 기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를, 경력은 해당 경력 1년 이상의 유관 업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력과 학점, 공인영어성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입의 경우 지원서는 이달 22일 오후 5시까지 넥슨 컴퍼니 공개채용 사이트(http://career.nexon.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이후 서류전형, 직군별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가 선정된다.

경력 채용은 수시로 진행된다.

넥슨 컴퍼니 입사 지원자를 위한 채용설명회 '커리어 클럽'도 준비됐다.

행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넥슨 판교 사옥에서 개최된다. 넥슨 이정헌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현업 개발자들의 특강과 함께 개발직군 1:1 포트폴리오 상담, 인사 담당자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단순 나열 대신 대화형 검색 제공"

네이버 검색 화면 개편

네이버 검색 화면이 대폭 바뀐다.

네이버는 차세대 검색엔진 구축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용자 반응을 강화한 PC 통합검색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검색이 단방향의 문답형 방식이라면 이번 개편에는 사용자 상호 반응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문답형 정보 이외에도 이용자와 묻고 답하는 대화형 방식으로 해당 키워드와 연관된 정보를 추천·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명량 관객수'라는 키워드 입력 시 그와 관련된 웹문서,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출처의 문서를 이용자 검색 선호도에 맞게 단순히 나열해 보여주었다. 새로워진 네이버 통합검색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답 정보를 즉답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 지인과의 실제 대화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통계적으로 추출해 출연 배우,영화 정보 등의 연관 정보까지 알려준다.

이밖에 '제습기'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단순히 상품 및 관련 광고를 나열하는 대신, 제습기 구입 관련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검색 패턴을 추출해 체크 리스트 방식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통합검색은 기존의 서비스 묶음 단위로 검색결과를 나열해 제공하는 문답형 방식에서 발전해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모바일 버전의 통합검색 개편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기업 2곳 중 1곳 "이공계 선호"

29%는 아예 이공계로 지원자격 한정

국내기업들의 이공계 전공자 선호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선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3.6%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기술력이 필요한 직무라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주력 사업이 이공계와 관련 있어서'(39.7%), '다른 전공보다 지식 습득이 어려워서'(7.7%), '학업에 열정적인 인재가 많을 것 같아서'(2.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특히 이공계를 선호하는 직무는 '연구개발'(35.3%), '제조·생산'(21.2%), 'IT·정보통신'(10.3%), '영업·영업관리'(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1%)은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29.2%는 지원자격을 이공계 출신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kmlee@

'하이패스 단말기가 2만원대' 1일 오전 성남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서울요금소에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2만 원대로 가격을 대폭 낮춘 하이패스 '행복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 이날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5종은 모두 2만5000원 미만으로, 자동요금지불과 음성안내 등 필수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을 거쳐 품질도 검증된 제품이다. /연합뉴스

삼성중-삼성엔지니어링 합병

2020년 매출 40조원 목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1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플랜트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합병 비율은 1대 2.36으로 삼성중공업이 신주를 발행,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삼성중공업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에게 교부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오는 10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12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합병을 통해 오일메이저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육상과 해상을 모두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합병 후에는 새로운 비전에 걸맞게 합병 법인의 사명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의 강점 분야인 설계·구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양플랜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제작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육상 화공플랜트 중심에서 고부가 영역인 육상 LNG와 해양 플랜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종합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설계·구매·제작)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13년 약 25조원에서 2020년에는 4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종합플랜트 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양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설비, 제작 경험과 우수한 육상·해상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종합플랜트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플랜트와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각각 쌓은 양사의 전문 역량과 기술을 통합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창립한 삼성중공업은 1995년 세계 최대 규모인 3도크를 완공하며 대형 조선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메가블록 공법이라는 신공법을 도입해 건조 능력을 크게 확대하며 세계적 조선소로 발돋움했다. 2010년 이후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대형 해양플랜트 EPC 시장에 진출, 사업수행 역량 확보에 매진해 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978년 삼성그룹이 코리아 엔지니어링을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한 이래 화공플랜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2010년 이후에는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철강 분야로 진출하면서 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상반기 기업결합 286건·88조

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은 70% 넘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286건으로 작년 동기(287건)보다 1건 줄었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88조 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9조 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29건으로 작년 동기(223건)보다 6건만 늘었지만, 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2000억원)보다 72.2%나 증가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2조300억원) 등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결합 건수 중 국내기업에 의한 것은 80.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4.1%에 불과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57건, 7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64건, 82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23건으로 작년 동기(26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원)보다 오히려 7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55건, 5조5000억원이다. 결합 건수는 작년 동기(74건)보다 25.7% 줄었지만, 금액은 작년 동기(3조원)보다 83.3% 늘었다. /유주영기자 boa@

삼성 PUSH PULL 도어록 이색 체험 켐페인 삼성SDS가 자사의 'PUSH PULL 도어록'을 알리기위해 서울시내 주요 버스 쉘터에서 이색 체험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삼성SDS 제공

The-K예다함상조, 5주년 행사

국내 상조업계 선두 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상조회사 The-K예다함상조(대표 김호영)가 1일 창립 5주년을 맞았다.

예다함은 창립일을 맞아 마포구 도화동 본사에서 김호영 대표를 비롯해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5년내 대한민국 대표 넘버원 상조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0비전의 결의를 다졌다. 또 국내 상조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장례 관련 학과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예다함은 업계 최단기간 고객 선수금을 확보하며 회사의 규모와 신뢰감을 키웠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영 노하우와 자본금을 토대로, 지난 2009년 창립한 예다함은 창립 4년여만에 고객부금 예수금 1000억원을 돌파했다. 8월 현재 1120억원, 총자산 1460억원에 달한다.

김호영 대표는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고객감동, 정도경영, 자기혁신, 사회공헌을 통해 깨끗한 기업, 따뜻한 기업,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6 카드결제 기능 탑재

애플, 아멕스와 제휴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에 카드결제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리코드는 애플이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제휴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따라 9월 9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6'에 전자지갑 기능이 탑재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리코드에 따르면 전자지갑은 아이폰 5s에 채택된 지문인식 시스템 '터치 아이디'와 결합한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상점에서 신용·직불카드나 현금 대신 스마트폰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나 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뉴스 사이트 디 인포메이션은 애플이 비자와도 이런 제휴를 맺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NFC를 이용한 모바일결제에 뛰어들면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이 이미 아이튠스 계정 등을 통해 약 8억 장에 이르는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강남재건축 vs 도심재개발, 하반기 기상도는…

서울 강남·도심에서 6개 단지, 2019가구 일반분양

7·24대책에 이어 9·1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새 아파트 선점을 위한 청약열기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을 기록했던 서울 강남 재건축과 도심 재개발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추석 이후 서울 강남권과 도심권에서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 단지, 7025가구에 이른다. 이 중 일반분양되는 물량만도 2019가구 규모다.

이번에 선보일 단지들은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노른자위 입지로,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 사업지간 분양 성적을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인다.

◆호기 맞은 '강남 재건축'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과 반포동에서 3개 단지, 2940가구(일반분양 409가구)가 분양된다.

서초구는 지난 1년간 서울지역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싹쓸이한 지역으로, 이번 가을 분양잔치에서는 경쟁율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TI·LTV 규제 완화로 수요자들의 강남 진입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이달 강남역 인근 서초동 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의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총 421가구 중 전용면적 83~139㎡의 49가구가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5분 거리다.

같은 달 반포동에서는 대림산업이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를 분양한다. 전체 1612가구 중 전용면적 59~164㎡, 213가구가 일반청약을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5분 거리이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오는 10월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해 '서초 푸르지오 써밋'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20㎡, 총 907가구 중 1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더블 역세권 단지로,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올림픽대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직주근접 가능한 '도심 재개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돈의문뉴타운, 사직2구역,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3개 단지, 총 4085가구(일반분양 1610가구)가 쏟아진다.

도심의 경우 직장·주택 근접을 바라는 직장인 수요가 꾸준하지만 택지 부족과 재개발사업 난항 등으로 한동안 주택공급이 주춤했다. 그러다 작년 종로구 순화동 '덕수궁 롯데캐슬'이 평균 7대 1로 마감되며 분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GS건설은 오는 10월 서울 중구 만리2구역을 재개발한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분양한다. 전용 59~89㎡, 총 1341가구 규모다. 이중 4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1·4호선·인천공항철도·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11월에는 종로구와 중구에서 각각 GS건설과 롯데건설이 '경희궁 자이'와 '사직2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종로구 교남동 돈의문 뉴타운1구역 '경희궁 자이'는 전용 25~129㎡, 총 2366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도 1077가구에 이른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한양도성과 경희궁이 인접했다.

롯데건설은 종로구 사직2구역을 재개발한 '사직2구역 롯데캐슬(가칭)'을 공급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서울 강남권 VS 도심 주요 분양 단지>

지역	위치	단지명	전용 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월)	시공사
강남 재건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59~144	421(49)	9	삼성물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	59~164	1612(213)	9	대림산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59~120	907(147)	10	대우건설
도심 재개발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센트럴 자이	59~89	1341(418)	10	GS건설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 자이	25~129	2366(1077)	11	GS건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 2구역 롯데캐슬(가칭)	59~140	378(115)	11	롯데건설

※분양일정 및 내용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각사>

서초동 우성3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조감도.

SK건설, '따뜻한 추석 봉사' SK건설은 지난 30일 밀알복지재단과 서울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송편과 인절미 등 추석 음식을 만들어 인근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가족봉사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 제공

8개 시·도 월세 0.1% 하락…17개월 연속↓

월세 공급 증가로 8개 시·도의 평균 월세가격이 17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8월 8개 시·도의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이 -0.2%로 평균보다 내림폭이 컸고,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서울(-0.2%), 경기(-0.2%), 인천(-0.1%) 모두 지난달보다 하락했다.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시즌에 따른 계절적 비수기에 임대인의 월세 선호에 따른 공급 증가, 임차인의 월세 기피 현상 등이 겹치면서 월세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지방광역시는 부산(-0.1%), 광주(-0.1%), 대전(-0.01%)에서 소형아파트의 월세 전환과 신축 원룸 공급 증가 영향으로 하향조정됐다. 다만 울산은 현대중공업·하청업체의 고용으로 인구가 늘면서 0.1% 올랐고, 대구는 변동이 없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0.2%), 오피스텔(-0.2%), 연립·다세대(-0.1%), 아파트(-0.1%),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0.2%)가, 지방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0.3%)이 특히 약세를 나타냈다.

월세이율은 8개 시·도가 0.78%(연 9.4%)로,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0.76%와 0.73%로 파악됐다. 울산이 0.88%로 가장 높고 서울 강남지역 11개 구가 0.71%로 가장 낮았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비리 직원에도 퇴직금 전액 지급

134조 빚더미 LH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총 부채 134조원으로 그에 따른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한다. LH는 지난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김모 계장의 경우 인천지역본부에서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 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부산울산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정모 부장도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었으나 총 8900만원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또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허모 부장의 경우 철거업자로부터 사업상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300만원 전액을 챙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홍모 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 카지노를 수회 방문했다가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됐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사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 함진규 의원(시흥갑·새누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소비자 "자가용으로 택시? 신뢰할 수 없다"

Issue&View
우버와 카카오택시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택시와 카톡회원 연결하는 방식 바람직

유사 콜택시 앱 '우버'가 서울시는 물론 정부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급 리무진 차량을 활용한 '우버 블랙'에 대해 불법 서비스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9일 자가용을 투입하는 '우버 엑스'를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우버가 이처럼 하대를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택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조직이 일반 차량을 이용해 택시 사업을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택시 기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공급자와 감시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우버에 대해 그리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려워 우버를 쓰기가 망설여진다는 중론이다.

무엇보다 엄연히 택시가 있는데 앱 하나로 택시가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 사업을 한다는 점에 반감이 적지 않은 눈치다.

우버 논란을 접한 한 네티즌은 "택시는 퇴직자나 자영업자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다.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이 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 택시 운전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버가 합법이라면 요트나 소형 배를 가진 사람도 누구나 여객 사업을 할 수 있고 전용기를 가진 일부 부자들도 대한항공처럼 손님을 외국에 실어나를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카오 택시'를 보면 우버가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나 싶다.

카카오는 기존 택시 사업자와 카카오톡 회원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택시를 타기 편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자 역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마냥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손님을 태울 수 있어 연료 절약까지 덤으로 할 수 있다.

상생 경제는 기존의 멤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갑자기 새로운 멤버가 기존의 구성원을 위협한다면 상생이 아닌 공멸이다.

상생 경제에 대해 확실히 공감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소비자들은 벌써 카카오택시를 기대하고 있다.

꼼꼼 IT 리뷰 – 벨킨 'QODE 키보드 케이스

키보드 케이스 스탠드 1인 3역

태블릿PC의 스펙이 대폭 향상되면서 어지간한 중급 노트북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한컴이나 MS에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태블릿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앱을 내놓으면서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이 기기가 '생산'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태블릿 전용 키보드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키보드를 장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업무를 하려면 태블릿의 뒤를 받쳐줄 스탠드가 필요하고 거기에 액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태블릿을 노트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다보니 키보드, 스탠드, 케이스를 모두 챙겨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벨킨이 최근 선보인 10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전용 'QODE 유니버설 키보드 케이스'는 이러한 불편을 단박에 해결한다.

이 제품은 키보드, 스탠드, 케이스 역할을 한번에 한다. 배우로 치면 1인 3역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경우 그간 전용 키보드가 없어 문서 작업이나 컨텐츠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삼성 갤럭시 탭 S 10.5,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 LG G 패드 10.1 구글 넥서스 10, 소니 엑스페리아 Z2 등 대부분의 10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PC를 지원한다.

이 제품이 매력적인 점은 키보드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는 남성의 손과 손가락의 크기를 감안할 때 오타가 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품은 소형 노트북의 자판에 버금가는 크기와 여유를 살려 제작됐다.

기기를 거치하는 내부 모서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10인치 태블릿 크기에 딱 맞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고정할 수 있다.

▲사용자 지정 단축키 ▲케이스를 분리하지 않고도 카메라 사용 가능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시간 사용 등의 장점도 지녔다. 12만9000원.

/박성훈기자

우수고객에 '미슐랭 요리' 체험 이벤트 SK텔레콤은 새롭게 선보인 우수 고객 초청 프로그램 '테이블'(Table)의 첫 행사로 '테이블 2014–미슐랭의 별을 맛보다'를 진행한다. T멤버십 가입 고객은 테이블 2014 공식 홈페이지(www.table2014.co.kr)에서 본인과 동반자 1인을 지정해 응모하면 된다. /SKT 제공

10주 공부하면 JLPT N2급

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일본어' 출시

학원에 다닐 필요없이 일본어도 뇌새김으로 마스터할 수 있다.

교육컨텐츠 전문기업 위버스마인드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스마트 학습기 '뇌새김 일본어'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뇌새김 일본어'는 마치 어학연수를 간 것처럼 실전회화를 중심으로 일본어 전 영역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자의 성향과 목표 스케줄에 따라 주 3일, 5일, 7일로 학습과정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성해준다. 음성인식, 필기인식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일대일 코칭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일본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 스타강사 이주현 선생님의 인터랙션 문법 강의도 들어있다.

주 7일 과정으로 설정한 뒤 뇌새김 커리큘럼에 따라 약 10주 동안 공부하면 JLPT N2급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위버스마인드 측은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최강 셀피모드 장착

올림푸스 '펜 라이트 E-PL7'

셀피(셀프 카메라)에 최적화된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왔다.

올림푸스한국은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처음으로 LCD 화면이 아래로 180도 젖혀지는 '올림푸스 펜(PEN) 라이트 E-PL7'을 1일 선보였다.

이 제품은 LCD를 아래로 내려 터치할 때 손으로 렌즈를 가리지 않아 안정적인 각도에서 셀피 촬영이 가능하다. LCD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초점을 잡고 1초 뒤 사진을 찍는 '터치 AF 셔터'와 '셀프 타이머'가 활성화 된다. 얼굴 인식 기능도 있어 더욱 선명하고 정교한 촬영이 가능하며 위피(단체 촬영)에도 유용하다.

올림푸스 기함(flagship) 카메라인 OM-D E-M1과 동일한 화상처리 엔진 '트루픽VII'을 탑재하고 1720만 화소 라이브 MOS 센서를 장착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필터 기능도 강화했다.

/이국명기자

허리 통증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증상과 자세 점검으로 척추 질환 확인 가능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손·다리·허벅지 등에 통증이 먼저 나타나기도 해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척추 질환의 자가진단법을 알아두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의심되면 병원 찾아 검사를

먼저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주변 신경을 건드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과 엉덩이 통증이 동반된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바로 펴는 것이 힘들고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다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척추관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같이 허리 통증 외에 엉덩이나 다리에 통증이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또 앉았을 때나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어진다.

아울러 목 디스크 역시 목에만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뼈 뒤쪽으로 어깨와 팔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 어깨와 팔, 심한 경우에는 손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이와 함께 척추 모양의 변형으로 인해 자세가 달라져 육안으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척추전만증과 척추측만증이 대표적인데 척추전만증은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골반이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의 곡선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굽어지면서 발생한다. 즉 척추가 앞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져 일명 '배불뚝이' 자세처럼 배를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닥에 누웠을 때 허리 부위에 손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척추전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반면 나쁜 자세와 습관이 원인인 척추측만증은 자세가 틀어지면서 척추의 휘어짐이 회전을 동반해 골반과 어깨 등 신체가 전반적으로 뒤틀리는 양상을 보인다. 양쪽 어깨선의 높이가 다르거나 등의 한 쪽이 튀어나온 경우, 양발의 길이가 차이 나고 신발 굽이 서로 다르게 닳았다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크다.

서정석 부평힘찬병원 과장은 "한 가지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정밀 검사와 함께 숙련된 전문의의 촉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건강 도움주는 추석 선물 어떤게…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르자

추석이 다가오면서 평소 잘 살피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타민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선물을 고를 때 받는 사람의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을 고른다면 더욱 애틋한 마음을 담을 수 있다.

입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과 취업이나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20대에게는 체력과 정신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 좋다.

집중력 장애, 주의력 저하 등에 시달리는 조카들이 있다면 베링거인겔하임에서 출시한 종합영양제 '파마톤'을 추천한다. 파마톤은 인삼추출물 'G115'를 함유해 세포의 산소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뇌 신경물질을 자극해 정신 능력을 향상시키데 도움을 준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에게는 섭취가 간편하고 체내 흡수와 효과가 빠른 발포비타민이 제격이다.

바이엘 코리아에서 출시한 멀티비타민 '베로카 퍼포먼스 발포정'이 대표적으로 이 제품은 물에 녹여 마시는 발포정 형태로 체내 흡수가 빠르고 음료처럼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또 제품은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등 12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카페인과 설탕, 인공 보존제 등이 첨가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여성 직장인들은 다이어트로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 남성에 비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장 관련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유산균이나 정장제 등을 선물하는 것이 적당하다.

5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선물을 골라야 한다.

노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관절 문제인데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관절 건강에 좋은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을 함유한 경남제약의 '콘트롤러 300'이 도움이 된다.

우울증 등 여성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동국제약 '훼라민Q'를 추천할 만하다. 식물 성분인 '블랙코호시'와 '세인트존스워트' 생약복합 성분이라 부작용이 적으며 안면 홍조, 우울감 등 여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황재용기자

'명절 증후군' 여성은 힘들어…

손목터널증후군·생리불순 등 주의해야

추석은 마음까지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명절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체휴일제로 추석연휴가 하루 더 늘었다. 하지만 연휴가 지나고 찾아올 '명절 증후군'으로 여성들은 추석이 결코 반갑지 않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은 손목터널증후군이다.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가 붓게 되면서 손목의 수근관이라는 통로가 좁아져 인대와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는 질환이다. 손 저림과 감각 이상, 마비 현상이 나타나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손목 사용 후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 중립 자세를 유지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연휴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과 두통을 경험하는 여성들도 많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화병으로 방치하면 불면과 같은 수면장애는 물론 심장 질환, 위장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시간 앉아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 명절 음식을 장만하다 보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복부 내 압력이 높아져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생리불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꽉 죄는 옷을 피하고 아랫배를 따듯하게 유지해야 한다.

전혜진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명절 증후군은 개인에 따라 증세가 달라 여성들은 명절 전후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생리불순은 자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건강 챙기는 한가위 되세요~

제약·의료계 다양한 추석 이벤트 실시

제약·의료계가 추석을 맞아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한가위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업 씨스팜은 오는 26일까지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관절팔팔'이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몸팔팔 ▲눈건강 루테인 ▲간건강 밀크씨슬 ▲비타팔팔 등의 주요 제품들도 30% 이상 값을 내린다. 또 관절팔팔과 간건강 밀크씨슬이나 비타팔팔을 함께 구성한 특별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또 호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는 트리플러스 업그레이드 세트·트리플러스50+ 세트 등의 베스트셀러 제품들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10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고객을 위해 국내산 6년근 홍삼을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드에너지 세트와 커플세트, 오메가-3 세트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튼튼병원은 추석을 맞아 역귀성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역귀성을 택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감사와 효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검진 대상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원은 13일까지 뇌졸중 치매 검진과 종합검진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우리 차례상 지키기 캠페인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롯데주류는 1일 오전 서울 경운동 민가다헌에서 '백화수복과 함께하는 우리차례상 지키기' 캠페인을 가졌다. 이 캠페인에서 백화수복 모델 김수미씨와 보성 선씨 참의공파 21대 종가의 장녀 선소영씨가 종가 고유의 차례상 차림을 재현했다. /손진영기자 son@

패션업계, 연예인 '감각' 믿어봐?

직접 상품 기획·디자인 참여, 모델 넘어 파트너로 실력 발휘

패션업계에서 연예인들의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모델 활동 수준을 넘어 제품 개발에 깊게 관여하며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의 네임밸류만 이용하던 마케팅 전략에서 최근에는 직접 상품 기획 단계부터 제품 디자인까지 참여해 본인의 재능을 제품에 담아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해당 연예인에게 자신의 패션 센스와 디자인 감각 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고 브랜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며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여 매출증대까지 꾀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가방 디자이너로 변신한 최시원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가방 브랜드 힐리앤서스(Helianthus)의 디자이너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해당 브랜드 측은 최시원을 공식 모델로 발탁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 이어 그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지난달 말, 브랜드는 최시원이 직접 디자인한 트위기 라인과 시원 포트폴리오 출시를 알리며 200개 한정 수량으로 제품을 내놨다. 협업 제품 중 백팩은 블랙 & 화이트의 조합과 3D 패턴의 별 문양을 접목해 젊은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최시원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힐리앤세서스 매장에 직접 방문해 아이템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로이킴, 헤리토리와 함께 콜라보

패션기업 세정의 캐주얼 브랜드 '헤리토리(HERITORY)'는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로이킴과 손잡고 '헤리토리 X 로이킴'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지난 8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제품은 평소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로이킴의 취향이 잘 반영돼 화이트와 네이비 등 모노톤의 색상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로이킴이 손수 그린 그림이 포인트로 삽입됐다.

로이킴은 브랜드 심볼인 잉크병을 모티브로 영국 국기 '유니언 잭(Union Jack)'의 레드와 네이비·화이트 세가지를 활용해 직접 그림을 그렸다. 'LOVE'와 'PEACE'의 메시지를 담아 다소 침체돼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사랑과 희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유아인·노앙, '뉴 키즈 노앙' 론칭

디자이너 브랜드 노앙은 유아인과 함께한 서브 레이블 '뉴 키즈 노앙'의 탄생을 지난 5월 알렸다.

현대적인 이미지와 그래픽 디자인이 특징인 티셔츠가 주 제품인 이 레이블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의 '프롬 뉴키즈 투 뉴 키즈(From newkidz to new kids)'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배우 유아인과 함께 첫 번째 협업을 단행했다.

평소에도 패션 감각이 남달랐던 유아인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하며 매력적인 제품들을 다수 선보였다. 특히 '러브시티(Love City)' 시리즈는 한글과 영문을 조합한 세계 6개 도시의 이름을 그만의 위트로 새롭게 탄생시켜 화제를 모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로이킴·유아인·최시원.(왼쪽부터) /헤리토리·노앙·힐리앤서스 제공

세우고 걸고 "좁은 집 넓게"

싱글족 겨냥 '공간 절약형' 조리·청소 가전 눈길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좁은 집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절약형'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작은 크기에서 벗어나 세워서 보관하는 냄비, 벽에 거는 드라이기 등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사용은 물론 수납 편의성까지 개선한 스탠딩·행잉형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재료 보관부터 요리까지 이뤄지는 주방은 공간 절약이 가장 절실한 곳이다. '마이셰프 세라믹 코팅 냄비 베이직 라인'은 뚜껑에 달린 손잡이를 이용해 뚜껑을 수직으로 세울 수 있어 조리 중에도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특히 손잡이가 길어 뜨거운 냄비 뚜껑도 쉽게 들고 내릴 수 있어 화상의 위험도 적다. 이뿐 아니라 내식성이 뛰어난 세라믹으로 코팅 처리돼 안전하다.

핸디형과 스틱형이 결합된 'LG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는 충전 겸용 거치대를 활용해 제품을 수직으로 세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좋다. 좁은 공간을 청소할 때는 핸디형, 침대 밑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을 청소할 때는 스틱형으로 사용하면 된다.

보관 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벽걸이 가전도 인기다. 과거 벽걸이 형태는 에어컨·TV 등 대형가전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작고 저렴한 소형가전도 '행잉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헤어브랜드 JMW이 선보인 헤어드라이어 DS2021B는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미니 헤어드라이어다. 전용 거치대와 스프링 코드가 장착돼있어 보관 시 불편함을 줄였다. /박지원기자

마이셰프 세라믹 코팅 냄비 베이직 라인, LG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왼쪽부터)

립스틱 짙게 바르고…

레드·핑크 입술 화장 가을 유행 예감

올가을 여성들의 입술이 붉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이번 시즌 유행색으로 레드 컬러를 제안하고 다양한 톤의 빨간 립스틱을 선보이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레드를 비롯해 10가지 컬러를 맑고 촉촉하게 담아낸 립 신제품 '크림멜로우 립스틱'를 출시했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레드 립스틱은 가을이면 누구나 써보고 싶은 로망 컬러이지만 매일 사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 착안, 촉촉하게 발색되는 '촉촉 물먹은 레드'를 메인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페리페라는 립밤처럼 부드러우면서 발색력은 뛰어난 립스틱 '루즈팡'을 내놨다. 이 중 붉은 계열은 총 3가지로 '어쩌다 한시' '아찔 형광레드' '여왕처럼' 등 위트 있는 이름을 붙여 바르는 재미까지 더했다. 페리페라의 뮤즈인 에이핑크 '손나은'(사진)은 어쩌다 한시 립스틱으로 톡톡 튀는 파티걸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신곡 '빨개요'로 컴백한 섹시 아이콘 현아의 강렬한 레드 립스틱도 화제다.

뮤직비디오에서 현아가 바른 제품은 메이크업 브랜드 맥(MAC)의 '루비 우'로 알려졌다. 이 제품은

레드카펫에 서는 여배우가 많이 사용해 일명 '여배우 립스틱' '백스테이지 립스틱'이라 불린다.

맥 관계자는 "루비 우는 론칭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며 "올가을에도 많은 여성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결혼적령기 넘긴 자녀때문에 속 타는 부모마음...

결혼정보회사,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결혼의 기본은 믿음, 가연은 고객과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ㅁ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문의 : 080-586-5000**

"信의 한 수"

元[으뜸 원]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종합 1위 기업, 가연"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 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 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고객중심 경영철학'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문의 : 080-586-5000**

願[바랄 원]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제대로 된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은 따로 있다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사전 정보없이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는 없는 법.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 해 봐야 할 내용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와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와 철저한 보안. 그리고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080-586-5000**

援[도울 원] "결혼 고민 앞에 망설일 필요는 없죠"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결혼정보회사의 문 앞에서 다소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결혼에 대한 고민조차 마음껏 털어놓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고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열할은 물론 회원이 원하는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 드리는 일이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민, 부담,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커플매니저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가 수행하고 도움을 드리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 하면 등급이라던지 노블레스라던지 하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고, 저희 가연에는 전문직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상이 다르고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 수 있는 용기와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주저함과 망설임은 잠시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나 커플매니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 결혼생활,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이자 전문적인 조언자니까요.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결정할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건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들, 방향성 제시겠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미혼남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자 보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의 : 080-586-5000**

추석선물, 백화점이 대형마트보다 46% 비싸

한우갈비세트, 작년比 평균 21%↑

추석 선물로 같은 제품이라도 백화점에서 사면 대형마트 보다 46%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회장 김철운)가 최근 서울지역 주요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4곳을 대상으로 16개 품종 50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조사한 결과에서다.

유통업체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한우갈비세트(찜/탕용·1등급이상·1kg기준)는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만4120원, 백화점에서는 9만939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형마트가 백화점보다 35.5% 저렴했다.

참굴비(10마리·23~25㎝) 역시 대형마트가 백화점 보다 46.7% 저렴한 21만9340원에 팔고 있다. 옥돔(3kg, 25~30㎝)도 23.9% 낮은 20만7690원에, 주류 역시 시바스리갈 12년산(700㎖)은 20.4% 저렴한 3만9280원에, 발렌타인 17년산(700㎖)도 10.5% 싼 12만98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46개 품목 가운데 직접비교가 가능한 품목별 평균가격을 보면 지난해 추석 보다 한우갈비는 21% 올랐다. 사과가 7.3%, 참굴비는 5.5%, 버섯(백화고)은 4.4%, 인삼(수삼 大)은 3.5%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수입 갈비와 옥돔·한과·배 등은 지난해 추석에 비해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갈비세트(청정우·찜/탕용·1kg 기준)는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8.4% 하락한 평균 3만1330원에 판매됐다. 시바스리갈 등 5개 품목 주류는 프리미엄급 등을 비롯해 주요 품목이 지난해보다 내렸거나 비슷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품목별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수입갈비를 제외한 주요 농축수산물류와 주류 선물세트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대형마트 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참굴비 46.7%, 한우갈비 35.5%, 옥돔 23.9%, 버섯(백화고) 19.0%, 인삼(수삼 大)18.6% 등 최고 46% 이상 차이를 보였다.

품목별 가격동향은 한우갈비세트(찜/탕용·1등급이상·1kg 기준)는 지난해 평균 6만5570원에서 21% 상승한 8만1760원에 판매되고 있다.

참굴비(10마리·23~25㎝)는 지난해 보다 5.5% 상승한 평균 31만5510원, 옥돔(3kg·25~30㎝)은 전년 보다 6.3% 내린 24만2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조기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조금 회복되고 있으며, 출하량이 적은 과일 대체 품목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은 배(1호·7.5kg·신고/원황)가 지난해보다 0.2% 하락한 8만6190원, 사과(1호·5kg·홍로/부사)가 7.3% 상승한 93930원이다. 과일류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자연재해가 적었던 이유로 작황이 좋지만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출하량이 충분치 않아 조금 올랐지만 추석연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 질것으로 예상된다.

버섯(백화고 1kg)은 상반기 수확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4.4% 오른 33만5880원에, 인삼(수삼 1kg)은 3.5% 상승한 17만4360원에 판다.

경기불황속에 저렴한 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실속형 제품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오름세를 보인 품목과 보합세를 유지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J 스팸6호의 경우 지난해 보다 3.6% 상승한 4만5650원, CJ백설특선1호는 2.0% 오른 4만674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대형마트가 백화점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 구성과 등급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세트류는 해당업체별 전용상품 출시의 다양화와 특정 신용카드 추가할인, 1+1행사 적용이 판매점 마다 다를 수 있어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판매조건과 가격을 따져보는 합리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특색있는 홍삼 제품 출시 잇따라

예년보다 이른 여름 추석에 추석선물 고르기가 까다로워졌다. 비교적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난하게 선물할 수 있는 홍삼은 올해도 최고 인기품목이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홍삼 농축액이나 뿌리삼·절편 등에서 변화된 특색 있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대상웰라이프의 '홍삼을 품은 생도라지'는 기관지와 천식에 효과가 있으며, '홍삼을 품은 복분자와석류'는 부부가 함께 섭취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에게 좋은 두 가지 원료를 함께 배합했다. '홍삼을 품은 헛개추출액'은 생헛개의 열매와 나무를 사용해 만들었다.

동원 천지인은 홍삼에 블루베리·포도·배 농축액을 넣어 만들었다. 저온 추출 공법으로 48시간 동안 다려 홍삼의 유효성분을 최적화했다.

정관장의 '홍삼담은자연석류'는 여성을 위한 홍삼제품으로 홍삼농축액에 석류농축액을 더했다.

식품을 대체해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도 출시됐다. 굿베이스 '홍삼담은 참꿀'은 국내산 벌꿀에 6년근 홍삼농축액을 함유한 제품이다. 직접 섭취와 요리에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홍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물하기가 무난하다. 정관장 '홍삼양갱'은 무화과 씨와 과육이 함유돼 있어 소화효소·식이섬유·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고 씹히는 맛을 즐길 수 있다.

/정영일기자

통일염원 담은 노래 듣고 K푸드 비빔밥 먹고 글로벌 한식 브랜드 CJ푸드빌의 '비비고'는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처치에서 열린 가수 이승철의 통일송 '그날에' 발표회와 탈북 청년 합창단 '위드유(With-U)'의 합동 공연 직후 현지 참관객들에게 비빔밥 800인분을 증정해 호평을 받았다. /CJ푸드빌 제공

롯데리아, '학교대항전' 이벤트

롯데리아가 추석과 가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롯데리아는 9월 한 달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Lotteria)를 통해 '전국 학교대항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장 많이 응모한 학교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배달해 주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롯데리아 제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한 후 롯데리아 페이스북을 방문해 영수증 번호와 학교·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가장 많이 참여한 학교 전교생에겐

핫크리스피버거가 배달되며 2~3위 학교에는 불고기버거, 4~5위 학교에는 데리버거가 배달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10월 8일 당첨 학교 5개가 발표된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부모 등도 참가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택배마감 D-1, "실속 선물세트 불티"

강강술래, 추석선물 안전·신선배송 총력

택배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인 추석명절 선물세트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불황의 여파로 인해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정육세트는 10만원 미만이, 기업체나 단체구매 선물로는 5만원 미만 프리미엄 가공식품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

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에 판매 중이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13만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 0.7kg·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18만원) 등 프리미엄 세트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낸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5만1600원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은 이른 추석에 선물세트의 안전·신선 배송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냉가방에는 열전도율이 낮아 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고급원단과 이전보다 두툼한 단열재를 사용했다. 프리미엄세트에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켜 진공포장보다 3일 가량 더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MAP(가스치환) 포장'을 통해 신선배송에 만전을 기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철들 겨를없이 달려온 배우의 길

치기 어린 열정으로 앞만 보고 달리던 청춘도 30대가 되면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걷게 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철든다는 건 그런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강동원(33)은 "철드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철들 줄 모르는 이 배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데뷔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좋은 작품을 만들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군도: 민란의 시대'로 소집해제 이후 몸 풀기에 나섰던 강동원이 장르도 분위기도 전혀 다른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 9월3일 개봉)으로 극장가를 다시 찾는다. 김애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강동원은 17세 나이에 결혼해 16세의 아들을 둔 34세 젊은 아빠 대수 역을 맡았다.

처음 캐스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창 젊은 나이인데다 톱스타의 이미지가 강한 강동원이 아빠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강동원은 정작 걱정이나 부담이 전혀 없었다.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재용 감독이 연출하고 송혜교가 먼저 캐스팅됐다는 점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작품이었다.

"시나리오 자체의 완성도가 좋았어요. 군더더기가 없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아빠 역할은 처음이라며 걱정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초능력 쓰는 사람도 아동 유괴범도 제게는 처음이었거든요. 스타 이미지에 아빠 역할을 하는 건 마이너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좋은 작품, 그리고 정확한 역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극중 대수는 엄숙함과는 거리가 먼 친구 같은 아빠. TV에 걸그룹만 나오면 눈을 떼지 못하고 게임도 정말 좋아하는 철부지지만 아들 아름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다. 강동원은 "나랑 비슷한 캐릭터라서 최대한 나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으로 등장하는 과거 장면과 현재의 모습에 차별점을 두기 위해 체중을 10kg 가량 찌웠다 다시 빼기도 했다. 작품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그는 "배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강 동 원

16세 아들 둔 34세 아빠 변신
유쾌함 속 슬픈 감정 담아내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이 목표"

대수의 유쾌함은 영화를 밝은 분위기로 만드는 동시에 후반부의 슬픈 장면들을 흔한 신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대수가 아버지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가는 장면은 슬픈 감정에 취한 나머지 리허설을 취소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가야만 했다. 아름이와 마지막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 또한 영화 속 상황에 빠져들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동원의 감정 연기가 빛나는 순간들이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도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현실을 바라보기 마련이다. '두근두근 내 인생'이 관객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은 어느새 현실적이 돼버린 우리들에게 철들기 전 가졌던 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는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3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철들기를 거부한다.

"저는 철든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책임감이 많아진다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은 많은 편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독립심이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우 일 시작하자마자 대학교도 그만둔 거죠. 배우만큼은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강동원은 '두근두근 내 인생'을 좋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영화인데다 진짜로 힐링이 되는 영화"라는 점 때문이다. 그에게 '좋은 영화'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확고하고 상업적으로 기승전결을 갖춘" 영화다. 그리고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동원이 배우로서 바라는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목표는 다를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데뷔 초부터 무조건 좋은 작품만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다. 물론 마냥 상업적인 영화로만 인정받고 싶지는 않아요. 상업적이면서도 완성도도 함께 갖춘 영화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아람

'힙합≠비주류'…편견 깬 '쇼미더머니3'

참가자·발표곡 화제…패러디 콩트 프로도 인기

지난 수년간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 엠넷의 간판 프로그램은 '슈퍼스타K'였다. 하지만 최근 래퍼 서바이벌 '쇼미더머니'가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슈퍼스타K'를 압도하고 있다.

'쇼미더머니3'는 한 참가자의 교내 폭력 주도설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방송 기간 동안 숱한 화제를 뿌리며 가요 시장은 물론 방송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바비(본명 김지원)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신의 대부로 통하는 바스코(본명 신동열)를 꺾고 결승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방송 초반 대형 기획사 연습생이란 이유로 다른 래퍼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던 그가 결승에 오르자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송 직후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시청자 게시판엔 바비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튿날 정오 공개된 바비의 준결승 곡 '연결고리#힙합'은 온라인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앞서 바비가 예선에서 부른 '가' 'L4L(Looking for Luv)' 역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바비뿐만 아니라 올티(본명 정우성)·아이언(본명 정헌철)등 다른 출연진이 방송에서 선보인 곡들도 발매 후 큰 인기를 모았다.

음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음원이 차트를 점령하는 것은 '슈퍼스타K'나 JTBC '히든싱어'와 비슷하다. 하지만 '쇼미더머니'는 래퍼 서바이벌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청자에게 힙합을 소개하는 동시에 오락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중이다.

'쇼미더머니3'의 심사위원(프로듀서)들은 '래퍼들은 무서울 것이다'라는 대중의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만담꾼에 버금가는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특히 일리네어 레코즈의 프로듀서 도끼(본명 이준경)와 더 콰이엇(본명 신동갑)은 각종 유행어를 탄생 시키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쇼미더머니3'의 주요 시청층은 10~20대로 젊은 편이다. 하지만 '쇼미더머니'의 영향력은 고른 연령대가 시청하는 콩트프로그램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해 tvN '코미디 빅리그'는 '쇼미더머니2' 방영 후 '라임의 왕'이라는 코너를 선보였다. 개그맨들이 프리스타일 랩을 주고받는 모습은 '쇼미더머니' 예선에서 볼 수 있던 것이었다. 최근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로 떠오른 '힙합의 신'은 아예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쇼미더뭐니?'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콩트를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첫 선을 보인 '힙합의 신'은 코너 시청률 21.7%(TNmS 집계 전국 기준)를 나타내며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 내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방송 역시 20.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시청률 1위를 이어갔다.

음악 시장에서 비주류로 통하던 힙합을 다룬 프로그램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질 수 있던 배경에 대해 방송 작가 출신의 하철승 한성대 교수는 "출연진의 실력과 스타성,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연출이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완전체 컴백 앞둔 2PM 티저 공개

15일 정규 4집 '미친거 아니야?' 발표

그룹 2PM이 컴백을 앞두고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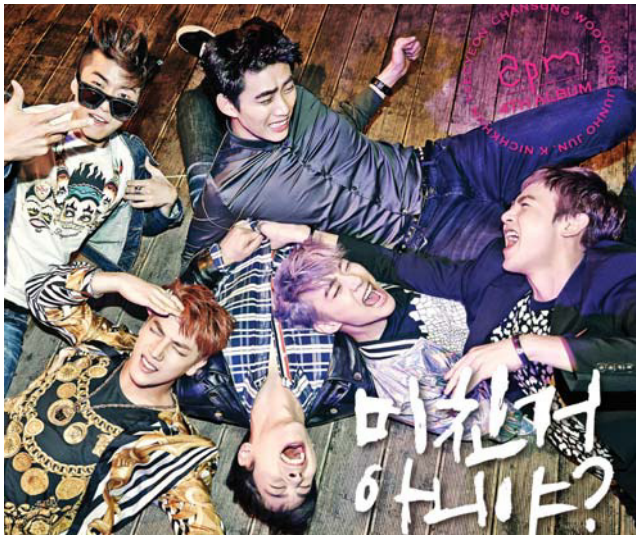
2PM은 1일 공식 사이트와 JYP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티저 이미지 4장과 정규 4집 앨범 명 '미친거 아니야?'(영문명 GO CRAZY!)를 공개했다.

공개된 네 장의 이미지들은 이번 앨범명 '미친거아니야?'라는 말처럼 미친 듯이 신나게 놀고 있는 멤버들의 이미지를 담아,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2PM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세 장의 티저 이미지는 지난달 29일 멤버들이 자체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준케이와 준호' '닉쿤과 우영' '택연과 찬성'의 이미지로 멤버들의 신나는 표정과 개성이 드러나는 의상, 화려한 색감의 배경이 어우러져 있다.

또 각각의 사진 속에는 정규 4집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공개와 프리파티 일정, 음원과 앨범 발매 계획을 알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9월 15일 컴백 전후로 2PM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파티인 프리 파티, 게릴라 파티, 애프터 파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한편 2PM의 '프리 파티'는 10일 오후 9시 클럽 옥타곤에서 팬들과 함께 진행되며 네이버 뮤직을 통해 생중계된다.

/양성운기자

서태지 10월 18일 컴백공연

'크리스말로윈' 개최 9집 최초 공개

가수 서태지(사진)가 오는 10월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1일 "서태지가 9집 활동의 서막이 될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을 10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발매한 8집 '서태지 에잇스 아토모스' 이후 5년 만의 컴백이다.

이번 공연은 서태지의 정규 9집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신곡 외에도 데뷔 22주년을 맞아 '하여가' '컴백홈' '교실이데아' '너에게' 등 명곡들로 가득 채워진다.

공연 규모도 블록버스터급으로 진행된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동원 관객 규모도 압도적이지만 음향, 세트 등 모든 면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공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연을 위해 세계적인 스피커 디자이너인 폴 바흐만이 방한해 직접 공연 음향 디자인을 총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티켓 예매는 3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양성운기자 ysw@

윤종신 생애 첫 전국투어

가수 겸 프로듀서 윤종신(사진)이 첫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를 연다.

윤종신은 자신의 히트곡인 '오래전 그날'을 타이틀로 한 공연을 6일 인천에서 시작한다. 공연은 수원, 과천, 대전, 고양 등지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펼쳐진다. 윤종신 음악 연대기가 공연의 콘셉트다.

윤종신 소속사 미스틱89 그리고가족은 1일 "윤종신이 가수 인생 최초로 진행하는 전국투어이며, 윤종신 특유의 감성 발라드를 좋아하는 많은 음악팬, 그리고 올 초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응답하라' 시리즈의 감수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바랐던 공연 콘셉트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1990년대 초반 015B 객원보컬 때의 노래를 포함한 섬세한 감정의 노래들, 90년대 후반부터 보여지는 윤종신만의 다채로운 히트곡, 여유와 관조의 감성들로 충만한 현재까지의 모든 음악 행보들을 아우르는 무대로 꾸며진다.

/양성운기자

로드토크쇼
고성국의 빨간의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길을 만든다
매주 |수| 오후 6시 50분 tvN 방송

가을 안방 1020 여주인공 몰려온다

크리스탈·신세경·심은경·김유정, 3040 주연시대 세대교체

올 가을 안방이 젊어진다. 1020세대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30대 여배우와는 다른 풋풋한 매력을 선사할 전망이다. 공효진·남상미·정유미·최지우에 이어 크리스탈·신세경·심은경·김유정이 드라마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그룹 에프엑스의 크리스탈(21·정수정)은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크리스탈은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가수 비(정지훈)와 출연한다. 크리스탈이 맡은 세나 역은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 음악으로 꿈을 이뤄보겠다며 상경했다가 현욱(정지훈)을 만나 사랑하는 인물이다.

크리스탈은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2011)·SBS '상속자들'(2013)에서 통통 튀는 면모를 지닌 가벼운 캐릭터를 소화한 바 있다. '내겐…'은 크리스탈의 첫 정극 주연 작이며 배우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17일 첫 방송.

배우 신세경(25)은 남상미 주연의 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 후속작 '아이언맨'에 출연한다. '아이언맨'에서 그가 연기할 손세동 역은 당차고 순수한 인물이다.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친화력을 지닌 캐릭터이기도 하다.

신세경은 2009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청순 식모'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영화 '푸른소금'(2011), 드라마 '뿌리깊은나무'(2011)·'패션왕'(2012) 등의 작품에서 나이보다 성숙한 연기를 했다. '아이언맨'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첫사랑에게서 받은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는 주홍빈(이동욱)을 손세동이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첫 방송.

배우 심은경(21)은 KBS2 새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에 출연한다. 작품에서 그는 설내일 역을 맡았다. '내일도…'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다. 설내일은 일본 배우 우에노 주리가 맡았던 노다메 역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심은경은 노력파 배우다. 그만의 오소리를 완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은경은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 '수상한 그녀'로 흥행력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안방에도 흥행 파워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작품은 정유미 주연의 '연애의 발견'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예정이다.

김유정(16)은 SBS 월화극 '유혹'의 최지우 뒤를 잇는다. '비밀의 문'에서 여주인공이자 가상 인물 서지담 역을 맡았다. 천재 추리소설 작가로서 이선(이제훈)의 특별수사대에 발탁돼 의궤살인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로 활약한다.

라마의 한 관계자는 "김유정은 그동안 많은 사극에서 깊이 있는 감정연기를 해왔다"며 "서지담을 입체적으로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팬엔터, '해품달' 작가와 또 맞손

150억원대 한중합작 드라마 1월 방송

팬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절강화책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드라마 '킬미, 힐미'를 제작한다.

1일 팬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절강화책미디어그룹(이하 화책미디어)과 내년 1월 MBC 방영을 목표로 '킬미, 힐미'(진수완 극본, 김진만 연출)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킬미, 힐미'는 김수현을 톱스타로 만든 '해를 품은 달'의 진수완 작가가 3년 만에 내놓는 신작으로 미국 로케이션이 상당 부분 포함돼 제작비 규모가 150억원에 이르는 대작이다.

2년여에 걸친 준비기간 끝에 탄생한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DID)를 소재로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재벌 3세와 그의 비밀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차 여의사의 버라이어티한 로맨스를 그린 힐링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킬미, 힐미'는 한·중 방송계를 대표하는 최대 제작사가 만났다는 것과 한국의 기획력·제작 노하우와 중국 자본이 각각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합작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화책미디어와의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국은 물론 중화권 시장을 공략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동 제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함께 제작·유통하기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헤어진 연인이 돌아온다면…

짝사랑의 실패든 사랑하던 연인과의 이별이든 실연은 대중문화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소재다. 이별의 아픔 자체를 노래하는 음악과 달리 최근 안방극장에선 이미 헤어진 연인과 다시 조우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은 100일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한 두 남녀가 7년 만에 새 신랑과 예식 지배인으로 만나는 얄궂은 상황에서 시작한다.

이혼한 남녀가 다시 만나 사랑하는 이야기는 이미 MBC '앙큼한 돌싱녀', tvN '응급남녀'에서 다뤘다. 두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모두 새로운 남자가 아닌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시청자들은 '마이 시크릿 호텔'의 결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마이 시크릿 호텔'은 여주인공 남상효(유인나)가 전 남편 구해영(진이한)의 결혼식을 준비해 준 다는 점이 독특하다. 호텔 예식지배인으로서의 역할과 전 아내의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워 하는 남상효의 내적 갈등은 극에 재미를 더한다. 구해영 역시 전 부인 곁을 맴도는 조성겸(남궁민)에게 질투를 느끼면서도 아내가 될 사람과의 관계는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KBS2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 /JS픽쳐스

KBS2 월화드라마 '연애의 발견'은 5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눈앞에 다시 나타난 후 현재의 남자친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본을 맡은 정현정 작가는 앞서 tvN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통해 두 남자를 두고 갈등하는 여자의 마음을 잘 표현해 마니아 층을 거느리고 있다. '연애의 발견'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세 남녀의 아슬아슬한 로맨스가 펼쳐진다.

드라마는 여주인공 한여름(정유미)이 전 남자친구 강태하(에릭)와 실수로 하룻밤을 지낸 사실을 현재의 연인 남하진(성준)에게 고백하면서 시작된다. '연애의 발견'의 재미는 한여름의 내적갈등보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팽팽한 신경전에 있다.

'연애의 발견' 시청률은 지상파 월화드라마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케세라세라'의 에릭·정유미 커플과 '로맨스가 필요해'의 정유미·성준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니아층에선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신혼부부' 된 신민아·조정석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리메이크 주인공

배우 신민아, 조정석이 신혼부부가 됐다. 신혼 생활의 이야기를 사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담은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통해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4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영민(조정석)과 미영(신민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이명세 감독이 연출하고 박중훈과 고(故) 최진실 주연으로 1990년에 개봉한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했다.

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제작보고회에는 임찬상 감독과 신민아, 조정석, 그리고 라미란, 배성우, 윤정희, 고규필 등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민아는 "조정석의 연기를 인상 깊게 봤었다. 팬이었다.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딱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촬영을 해보니 기대 이상으로 연기를 잘 받쳐주고 호흡도 잘 맞았다. 개그 코드도 잘 맞아서 재밌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여신 신민아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난리법석이었다. 마음이 뒤숭숭할 정도였다"며 작품을 통해 신민아와 만난 벅찬 소감을 전했다. 또 "촬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수식어를 붙이자면 '웃기는 여신'"이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신혼부부로 함께 연기한 만큼 서로에게 호감도 생겼다. 조정석은 신민아가 실제 아내로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정말 좋다. 그 동안 배우 신민아만 알았다면 이번 영화 촬영을 하면서는 인간 신민아를 알게 됐다. 더 좋아졌다"고 전했다. 신민아도 "조정 석은 남편감으로 유쾌하고 친절할 것 같다. 같이 대화하고 웃을 수 있으니 좋다"고 답했다.

결혼과 프러포즈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도 털어놨다. 신민아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프러포즈는 거창하지 않은 게 좋다. 진심어리고 소박한 프러포즈가 좋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나 역시 결혼은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후 아내가 출근 배웅을 해주면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찬상 감독은 신민아·조정석의 캐스팅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을 떠올렸고 둘의 호흡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1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제작보고회에 배우 신민아와 조정석이 참석했다. /손진영기자 son@

거장 켄 로치 신작 국내서 본다

실화 원작 '지미스 홀' 10월 9일 개봉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신작 '지미스 홀'이 다음달 9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켄 로치 감독은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12번 초청돼 최다 초청 기록을 세운 감독이다. '랜드 앤 프리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앤젤스 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 등을 통해 역사와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들을 사실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왔다.

신작 '지미스 홀'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즐거움의 공간이었던 마을 회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리더 지미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 바탕의 영화다. 올해 제67회 칸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켄 로치 감독은 200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었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후 9년 만에 아일랜드를 무대로 '지미스 홀'을 완성했다. 혼란스러웠던 1932년의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베일에 싸인 실존 인물 지미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장병호기자

김주혁·손예진 6년 만에 재회

'행복이 가득한 집' 부부로 출연

배우 김주혁이 영화 '행복이 가득한 집'(가제, 감독 이경미)을 통해 손예진과 6년 만에 재회한다. 1일 김주혁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김주혁이 영화 '행복이 가득한 집'의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국회 입성을 노리는 남자와 그의 아내에게 닥친 선거 기간 보름 동안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스릴러 영화다. 김주혁은 그 동안의 로맨틱 가이 이미지를 벗고 야망의 정치인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손예진이 극중 정치인의 아내로 캐스팅돼 김주혁과 '아내가 결혼했다' 이후 6년 만에 재회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2011년 이후 오랜만에 스크린에 컴백하는 만큼 김주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혁

손예진

연출은 '미쓰 홍당무'로 데뷔한 이경미 감독이 맡았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오는 9월 중순 첫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차태현 여장부로 스크린 컴백

'슬로우 비디오' 이색 캐릭터 맡아

배우 차태현(사진)이 영화 '슬로우 비디오'(감독 김영탁)를 통해 동체시력을 지닌 이색 캐릭터로 스크린을 찾는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전천후로 활약하고 있는 차태현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 2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으로 '슬로우 비디오'를 선택했다. 이번 작품에서 차태현은 이름부터 특이한 여장부 역을 맡았다.

차태현은 여장부에 대해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다. 레퍼런스가 없어서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연기했다"고 말했다. 함께 연기한 오달수와 남상미도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늘 보게 되는 인물"이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이 다 수상한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극중 여장부는 CCTV로 사람들의 일상을 매일 같이 지켜보고 깨알 같이 끼어들면서 묘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캐릭터다. 공개된 스틸에는 무표정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어딘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슬로우 비디오'는 남들이 못 보는 찰나의 순간까지 보는 동체시력의 소유자 여장부가 대한민국 CCTV 관제센터의 에이스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헬로우 고스트'의 김영탁 감독과 차태현이 재회한 작품으로 다음달 2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영양을 보충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추석 연휴 스트레스, 음식에 답이 있다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곧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석은 고난의 시기다. 밀리는 귀경길, 익숙지 않은 일가친척과의 만남, 끝없는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 등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예민해진다. 추석 이후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할 정도라니 추석 중 스트레스와 화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한방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막히면 체 내에 화(火)가 쌓이게 되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고 본다. 추석 때는 오랜 시간 운전을 하거나 요리를 하느라 몸이 굳기 쉽다. 그만큼 체 내 기혈 순환도 느려지게 된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치면 기혈이 막혀 화병,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는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한가운데 부분을 양 손끝으로 꾹 누르거나 손바닥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맺힌 화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손바닥이 뜨겁게 될 정도로 비벼서 얼굴을 세수하듯 쓸어주면 기혈순환이 좋아지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해준다.

추석 과일 중에는 배가 좋다. 동의보감에는 배에 대해 가슴이 답답한 것을 멎게 하고 가슴에 뭉친 열을 풀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병에 좋다는 뜻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기가 올라오는 사람에게 잘 맞는다.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무나 토란으로 만든 음식을 챙겨먹으면 좋다. 무와 토란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소화를 돕는다.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위와 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부터 천연소화제로 많이 쓰였다.

단 이들 모두 찬 성질의 본초이기 때문에 평소 몸이 냉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나 토란을 먹을 때에는 닭고기나 소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 함께 먹는 게 좋다. 닭고기와 소고기가 무와 토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배를 비롯해 포도, 감 등 성질이 차가운 과일보다는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를 잘 되게 돕는 밤과 대추를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대추씨를 끓여서 마시면 예민해진 신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소형 본초학 박사(김소형 한의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4	6			
	3		7			4		
2					5			1
	5			8		3		
	7		9		4		2	
		2		7			4	
6			3					4
		3			7		1	
			6	9		5		8

	2		1					9
			3			2		4
9	5		6					
		6		1	9	3		
	4			3			9	
		7	4	5		8		
					8		2	6
8		2			1			
1					3		7	

스도쿠 정답

5	9	1	2	4	6	7	8	3
8	3	6	7	1	9	4	5	2
2	4	7	8	3	5	6	9	1
4	5	9	1	8	2	3	6	7
3	7	8	9	6	4	1	2	5
1	6	2	5	7	3	8	4	9
6	1	5	3	2	8	9	7	4
9	8	3	4	5	7	2	1	6
7	2	4	6	9	1	5	3	8

6	2	4	1	8	7	5	3	9
7	1	8	3	9	5	2	6	4
9	5	3	6	2	4	7	8	1
2	8	6	7	1	9	3	4	5
5	4	1	8	3	2	6	9	7
3	9	7	4	5	6	8	1	2
4	3	9	5	7	8	1	2	6
8	7	2	9	6	1	4	5	3
1	6	5	2	4	3	9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스트레스 받는 성격, 몸이 많이 아파 일시적 이상징후 꾸준한 운동 필요

Q 예쁜 영혼 여자 84년 11월 17일 음력 새벽 4시 45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년 전에 하도 취업이 안 되어 답답한 마음에 지면을 통해 상담 드렸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8월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4월에 예기치 않은 급성복통으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몸 이곳저곳이 끊이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받아 가끔 아프기는 했으나 몇 해 전 삼재 때도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예전처럼 정말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인과 헤어진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애정 운은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 지요. 건강하세요.

A 오행과 질병의 상관성은 이제마선생의 사상의학과 일맥상통 합니다. 선생은 신체 오장육부의 기능의 강약과 비교해서 신체적 성격적 특질을 규정했고 개개인의 몸의 특징과 음식, 약과의 상호반응이나 상생이나 상극의 효과를 대입 해 병을 보다 효과 있게 치료할 수 있다는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체질 감별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은 따르지만 ,이러한 예로 몸과 마음의 유기체인 우리 인간은 몸이 힘들어도 정신에 영향을 주고 정신이 병들어도 몸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니 자기 성격에 따라 신체에 어떠한 식으로라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예쁜 영혼님은 쥐띠 생(子. 수;물)이 말날(午. 화;불)에 태어났습니다. 말(午)는 거스르다 의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이 물을 거스르니 물과 불의 부조화에서 복통뿐 아니라 차후에는 자궁. 위장. 건강에 이상 징후가 드러납니다. 이는 2014년에 일시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특히 2018년 지나면서부터는 시간과 경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간과하지 마시고 꾸준한 체크와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사주 학에서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을 나타내는 복통과 관계되는 장기가 겨울에 축축한 땅에 얼어버렸으니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다고 표현됩니다. 올해 갑오(甲午)년에 탕화살(湯火殺)이 작용되는 대운이 흑운차일(黑雲遮日:검은 먹구름)이 해(日)를 막으니 육체뿐 아니라 애정운도 그로인한 복통이 따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인연은 그리 폭넓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테두리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기도 하니 2014년 10월 지나 상대가 나타나면 다시상담하기바라며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시기를 잘 잡아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일 (음 8월 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믿었던 자손이 기대에 부응하는구나. **60년생** 필요한 순간 도우미 나타난다. **72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라. **84년생** 일이 안 풀려 다소 고전한다.

49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61년생**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라. **73년생** 이기적인 행동은 왕따 자초한다. **85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야호~.

50년생 배우자와 말다툼 피하라. **62년생** 작은 성공에 방심하면 꿈은 사라진다. **74년생** 음흉한 꼼수는 통하지 않으니 정도가라. **86년생** 원하던 대답 듣는다.

51년생 쉼표가 필요한 날이다. **63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잡아라. **75년생** 배우자의 따뜻한 유머에 힘이 솟는다. **87년생** 상사와 소통 창구 넓히는데 최선 다하라.

52년생 귀빈이 찾아오니 대비하라. **64년생** 싸구려 위로도 도움이 된다. **76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맥 못 추고 당할 수도. **88년생** 톡톡 튀는 개성의 덕을 보는 날~.

53년생 쇼크 받은 일은 진정된다. **65년생**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누려라. **7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89년생** 떠난 연인 밉더라도 상처에 소금은 뿌리지 말라.

42년생 평범하나 행복한 하루~. **54년생** 어른답다는 소리 들어 뿌듯하다. **66년생** 벼르는 경쟁자가 많으니 긴장할 것. **78년생**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43년생 술자리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된다. **55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조심~. **67년생** 빳빳한 고자세는 나중에 큰코다친다. **79년생** 결론이 애매해서 찜찜한 하루~.

44년생 감언이설에 속지 않도록~. **56년생** 승부수는 빨리 던질수록 이득이 많다. **68년생** 고난이 있어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라. **80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45년생 이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57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살맛이 나는구나. **69년생** 방황하는 친구 달랠 일이 생긴다. **81년생** 좌절을 이겨야 큰 사람이 되는 법~.

46년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는 법~. **58년생** 여론에 귀 막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70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82년생** 이론이 있으면 잡음이 생긴다.

47년생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59년생** 목적지 머지않았으니 힘내라. **71년생** 마음의 빈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진다. **83년생** 딱딱한 관념의 사고 벗어나라.

역시 류현진! 'V14' 화려한 부활투

샌디에이고 킬러 입증…올 시즌 18승까지 넘본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시즌 14승째를 달성했다.

류현진은 1일 미국 캘리보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4안타 1실점하며 7-1 승리를 이끌었다. 사4구 없이 삼진은 7개를 잡았다.

평균 투구수보다 적은 84개의 공만 던진 류현진은 8회에도 등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8회초 공격에서 6-1로 점수 차를 벌려 대타 앤드리 이시어로 교체됐다.

지난달 14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 염좌 진단을 받고 15일짜리 부상자명단에 올랐다가 복귀한 류현진은 최상의 몸상태로 부상 후유증 우려를 씻었다.

1회부터 시속 153㎞짜리 공을 뿌렸고, 특히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승부구로 사용한 낙차 큰 커브는 이전보다 위력적이었다. 올 시즌 24번째 등판 만에 14승(6패)을 거둔 류현진은 평균자책점도 3.28에서 3.18로 낮췄다. 이틀 연속 샌디에이고에 연장 끝내기로 패했던 팀의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류현진은 미국 진출 이후 샌디에이고와 경기에 4차례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0.71을 기록하며 천적임을 입증했다. 올해에도 앞선 세 차례 대결에서 2승에 평균자책점 0.47을 기록했다.

다저스 타선은 1회 선취점을 뽑으며 류현진의 복귀전을 도왔다. 야시엘 푸이그가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패스트볼로 3루까지 진루했고, 스캇 반 슬라이크의 1타점 적시타가 이어지며 1-0으로 앞서갔다.

류현진은 1회에는 마운드 적응이 필요한 듯 2루타 2개를 맞고 동점을 허용했다. 2회에는 삼진 하나를 잡으며 공 7개로 이닝을 끝냈다. 3회에도 삼자범퇴로 타선을 처리하며 안정감을 찾았다. 4회에는 첫 타석에서 2루타를 허용한 4번 타자 야스마니 그랜달을 삼진으로 잡는 등 공 10개로 세 타자를 처리했다.

다저스는 5회 핸리 라미레스의 볼넷과 애드리안 곤살레스의 볼넷, 맷 켐프의 중전 적시타가 이어지며 다시 2-1로 앞서 갔다. 6회 1사까지 14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한 류현진은 7회에도 안타 하나를 맞았지만 병살로 이닝을 정리하며 깔끔하게 마운드를 운영했다.

다저스는 8회초 부상에서 복귀한 후안 우리베의 적시타와 다윈 바니의 2타점 안타 등을 포함해 4점을 추가하며 류현진의 승수 추가에 쐐기를 박았다. 우리베는 9회초에도 2루타로 타점을 추가했다. 류현진의 뒤를 이은 마운드를 이어받은 페드로 바에스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과 같은 승수로 1차 목표를 달성하면서 올 시즌 몇 승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저스가 2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류현진은 앞으로 4경기 내외의 등판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왕젠민이 보유한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19승)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박찬호가 세운 한국인 메이저리거 한 시즌 최다승 기록(18승)에는 도전해볼 만 하다. 그 이전에 1승을 추가하고 3.18인 평균자책점을 2점대로 낮춘다면 에이스급 투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30경기에 나와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최형우와 채태인, 단장의 안목

최강 삼성의 설계자는 김재하 전 단장이다. 삼성의 감독과 사장을 역임한 김응용 한화 감독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단장은 처음 보았다. 삼성 야구를 일류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래를 짰다. 지금의 강한 삼성이 되기까지는 그의 공로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형우와 채태인의 영입과정을 소개했다.

최형우는 원래 김응용 감독 시절 삼성이 버린 선수였다. 전혀 성장 잠재력이 없었다. 부르는 곳이 없어 입대(경찰청) 했는데 실전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했다. 최형우가 제대를 앞두자 김 전 단장은 김 사장을 찾아와 "다시 데려와야겠습니다"고 말했다.

당시는 LG가 이미 눈독을 들이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최형우도 자신을 버린 팀 보다는 LG쪽을 생각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이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마음을 바꾸었다. 두둑한 계약금을 제시했다. 꾸준히 2군 경기를 보면서 최형우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었다.

채태인도 2002년 미국에서 돌아와 해외파 복귀 불가 족쇄에 묶여 5년 넘게 야인생활을 했다. 채태인의 타격재능을 눈여겨본 김 전 단장이 김 사장을 움직였다. KBO 이사회에서 2007년 돌아온 해외파 특별지명제도를 만들었고 채태인을 낙점했다. 채태인과 최형우는 최강 삼성을 이끄는 주축타자이다.

그만큼 스카우트는 중요하다. 김 감독은 "야구는 스카우트 싸움이다. 삼성은 김 전 단장 시절 유능한 스카우트 책임자를 보강했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며 김 전 단장의 안목에 경의를 표했다. 김 전 단장은 4년 전에 떠났지만 삼성은 통합 4연패를 노리고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지동원(왼쪽)과 가가와 신지. /연합뉴스

지동원·가가와 신지 도르트문트서 한솥밥

한·일 대표 선수 활약 예고

일본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가가와 신지(25)가 2년여 만에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복귀했다.

도르트문트는 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르트문트에서 뛰던 신지가 복귀했다"며 "신지의 소속팀인 맨유와 이적료 협상에 합의하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신지의 이적료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800만 유로(약 10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트문트에는 지동원(23)이 뛰고 있어 한·일 대표팀 선수가 한 팀에서 뛰게 됐다.

신지는 2012년 6월 맨유로 이적하며 '일본인 최초의 맨유 선수'로 이름을 올렸지만 두 시즌 동안 38경기에 나서 6골에 그치는 부진한 활약으로 결국 친정 복귀를 선택했다.

/양성운기자 ysw@

김인경 또 연장서 울었다

5번째 승부서 패배…LPGA 4년 만의 우승 놓쳐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4년 만의 우승을 아쉽게 놓쳤다.

김인경은 1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린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연장 접전 끝에 미국의 신예 오스틴 언스트(22)에게 패했다.

1~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내 언스트와 동타를 이룬 김인경은 18번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2m짜리 파퍼트를 놓쳐 준우승에 그쳤다.

2010년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4년 만에 우승을 노린 김인경은 아쉽게 우승 기회를 놓쳤다. 특히 LPGA 투어에서 다섯번째 연장전을 치러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 연장 상대인 언스트는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해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공동 6위를 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 톱 10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2주 연속 우승을 노렸던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은 최운정(24·볼빅)과 함께 공동 3위(12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최나연(27·SK텔레콤)과 지은희(28·한화)가 공동 5위(11언더파 277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허미정(25)은 공동 9위(10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유순호기자